

전체 등교 첫 날 “함께 공부하게 돼 기뻐”...우려 목소리도 커

“이 부분 시험에 나오겠지? 함께 공부하게 돼 기쁘다”

19일 오전 8시에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이날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오답정리 노트를 공유하며 등교했다.

빵과 우유 등 아침거리를 나누며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등굣길에 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3월 이후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번갈아 들어야 했던 고1·2학생들은 전체 등교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고1 김모(16·여)양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확산돼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적어 친구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 오랜만에 정상등교 하니까 사람냄새 나서 좋다”며 웃음을

“전체 등교 이르다” 등 다양한 반응 나타나

광주 299개교·전남 802개교 등교 마쳐

보였다.

고2 김모(17·여)양과 한모(17·여)양은 비대면 수업 날 노트를 자 놓친 수업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면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수업을 거르거나 집중이 흐려진다. 초·중학교 대부분을 대면 수업으로 보낸 만큼 아직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생활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대면과 비대면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등교일을 착각, “오늘 학교가는 날이냐”며 졸린눈을 비비며

황급히 교문으로 뛰어들어가는 학생도 있었다.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1 신모(17·여)양은 “실습이 없는 1학년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아침마다 버스안이 가득차 등굣길이 힘든데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오모(18·여)양은 “학교 수업 이외에도 인강(인터넷강의)을 많이 듣는 게 습관이 됐다. 사실 학교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하면 더 편한 것 같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등교하는 19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것 같다”며 “교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학생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체 등교가 실시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교실이나 문고리 등 학생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에 꼼꼼한 방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지역은 초등학교 전체 154개교 중 시차등교 포함 153개교가 이날 등교를 마쳤다. 중학교는 92개교 중 85개교,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61개교가 전체 등교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전면 등교 중이다.

전남은 초등학교 19개교를 제외한 409개교, 중등 249개교, 고등 144개교가 등교를 마쳤다.

신봉우기자

고 전체 등교에 대한 소감을 밝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전체 등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오모(17·여)양은 “단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 뿐이지 백신이 개발되거나 코로나19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직 전체 등교는 이른

것이다. 오모(17·여)양은 “단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 뿐이지 백신이 개발되거나 코로나19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직 전체 등교는 이른



광주 진보연대·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 등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의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적극 협조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18 망언자들을 당장 제명하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 실천으로 입증해야”

광주 진보연대,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 등 20개 단체가 국민의힘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의원들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은 5·18민주화운동 현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소만 하고 있다. 구체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5·18를 폄훼한 김진태 전 의원은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18 망언자들을 당장 제명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5·18 진상 규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사과가 진심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성착취 영상물 유포 ‘중앙정보부방’ 운영 11명 추가 적발

인천 사이버수사대, 2명 구속 9명·불구속 입건

10~20대 남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강요하고 그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1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운영자 중에는 중·고등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교생 A(18)군과 B(22)씨 등 총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생 C(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 15~27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10~20대 남학생 등 16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강요하고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SNS상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중앙정보부방은 고교생 운영자 C(18)군이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초 구속기소된 고교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중 상태다.

“수천만원 스폰서 소개할게” 속여 성관계...20대 송치

사기·협박 혐의로 검찰행...‘스폰서 중개인’이라며 접근

소위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20대 여성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한 SNS를 통해 자신이 몇천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고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잠적했다. 몇 개월 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앞선 성관계 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자신이 스폰서 중개인이라며 접근했으나 B씨와 만나는

자리에는 정작 자신이 나와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몇 개월 후 다시 B씨에게 연락해 스폰서 제안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보도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조주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